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조계종 원로회의(사진 좌측)와 이에 앞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모습.



김형주 · 신재호 기자

총무원장스님 교황 만났다

한국불교 최초로 베네딕토 16세와 면담
2013년 '세계종교지도자포럼' 협조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한국 불교 최초로 가톨릭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면담을 갖고 오는 2013년 개최하는 '세계종교지도자포럼'에 교황청이 뜻을 같이해줄 것을 요청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신교와 가톨릭, 원불교, 유교, 민족종교 등 6대종교 지도자와 함께 지난 15일 바티칸 교황청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오는 2013년 조계종이 지구촌 갈등극복을 위해 개최하는 '세계종교지도자포럼'에 교황청이 뜻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과 함께 '평화의 종'을 선물했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 등 6대종교 지도자들은 교황을 만나기 전에 교

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피에르 토랑 추기경 등과 환담을 통해 종교 간 대화와 평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난 12일에는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재(在) 로마 교민의 밤' 행사를 열어 교민과 대사관 직원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은 동서양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찰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일에 맞춰 축하 현수막을 거는 등 종교화합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종교간 대화와 화합은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만큼 오는 2013년 세계종교지도자포럼에 공식 초청할테니 꼭 참석하셔서 지혜를 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민족문화 외면...민주주의 유린” 규탄

긴급소집된 전국 교구본사주지회의 성명서 채택 원로회의 “전 종도 종단지침 준수하라”유시 내려

지난 8일 한나라당의 새해예산안 단독 강행처리에 대한 불교계의 비판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긴급 소집된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민족문화에 대한 외면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새해예산안 처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 및 여당 관계자의 사찰출입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관련 기사 2·3면

이어 열린 원로회의에서도 현 정부의 민족문화 무시 정책을 질책하고, 전 종도들에게 종단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중앙종회 의장단·분과위원장 연석회의, 조계종 템플스테이 사찰 주지 회의, 포교·신도단체 임원 회의가 잇따라 열려 종단과 행동을 함께 하기로 결의했다. 민족문화 수호를 위해 전 불자들이 단일 대의를 형성해 끝까지 정진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새해예산안 단독 강행처리후 열흘이 지난 지났지만, 오히려 불교계의 의지는 더 확고해지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질 것이란 정

부와 한나라당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불교계의 의지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원로회의의 유시와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에 따라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의 단호한 입장은 정부의 민족문화유산 소외정책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문화재의 80% 이상이 불교문화재인 상황에서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국가문화재를 보존·관리해온 불교계에 대해 시혜를 베풀듯이 국가예산으로 '통제'해 온 측면이 있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지난 8일 새해예산안 단독강행 처리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 불교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따라 종단에서는 더 이상 국가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행·신행·포교·교육 등에 매진하면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즉 민

족문화를 소홀히 하는 현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불교의 자주적 역량을 키우는데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은 “자비무적(慈悲無敵)과 화쟁정신(和諍精神)의 정신으로(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똘똘 뭉쳐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하며 현 종단 방침에 대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같은 날 “한 목소리로 불교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아쉬움과 불이익을 감내해서라도 변화해야 한다”면서 “개인적 특정한 본말사의 이익이 아니라 종단 이익을 위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17일 민족문화수호위원회(위원장 영담·정우·원행스님)를 공식 발족하고, 향후 집중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위원회 출범은 총무원 차원이 아니라 교구본사까지 참여한 ‘범대체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낸 것이다.

우선 22일 동지를 맞아 전국 본말사에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동지법회’를 일제히 거행해 불교계의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게 된다. 이날 동지법회는 새해예산안 단독 강행처리 후 불교계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신도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민족문화수호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불교계의 입장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여권과 불교계의 냉각기는 오랫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인사들이 개별적인 인연을 내세워 사찰을 방문하거나 스님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면서 불교계의 반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여권의 태도는 문제 해결은 커녕,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란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별취재팀 이성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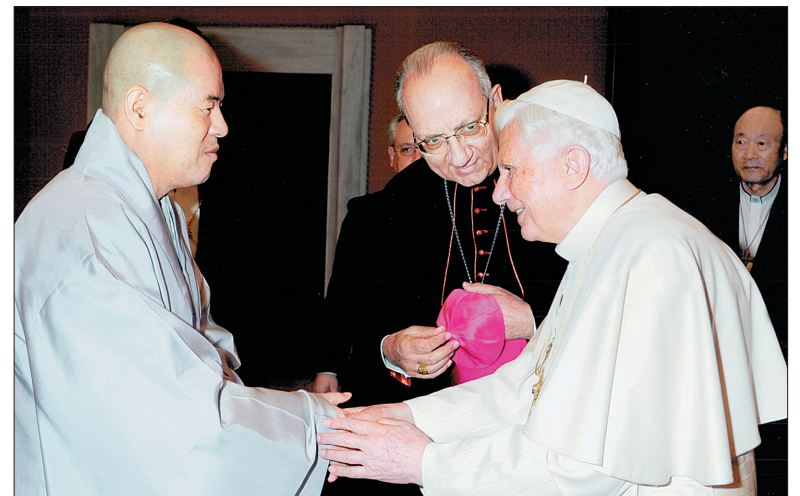
청년호법단 결성

대한불청, 내달 출범

불교를 편협하고 종교편향 사례에 대응할 청년호법단이 출범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16일 중앙사무국에서 '전법수호 삼보의호 대한불교청년회 호법단'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청년회는 이만희 전 대구지구회장을 호법단장으로, 이상일 현 서울지구회장을 부단장으로 임명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호법단은 오는 1월 중순경 회장 이·취임 법회에서 정식 출범을 알리고, 자체 동영상 제작 및 인터넷을 활용한 종교차별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청년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각역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한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전단지들을 배포했다. 정우식 제26대 회장을 비롯한 4명의 임원진들은 불교전통문화를 외면하고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고발하는 100여 부의 전단지를 건넸다.

정우식 회장은 “불교계의 현안에 대해 좀 더 많은 대중들과 호흡하고 민족문화 유산을 물이해하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면서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돼 밥그릇을 빼앗겼다는 식의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가톨릭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손을 잡고 있다. 사진제공=교황청

2011년도 신춘문예 마감

4개 분야 총 2212편 접수

불교신문사의 2011년도 신춘문예 마감 결과 시 2000편, 단편소설 90편, 동화 113편, 평론 9편이 접수됐다. 올해 경향은 동화와 단편소설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령층이 응모하고 있어 신예작가 지망이 세대를 초월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응모가 집중된 시·시조 분야에서 가장 많은 세대는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모자의 주소별 집계에서 전국 각 시도가 고루 분포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단편소설과 동화의 경우는 젊은

작가들이 대거 응모했다. 새롭게 다양한 소재들이 동화의 이야기 줄거리를 구성하고, 스마트폰과 3D영화 가 소설의 소재로 등장하는 등 새로운 시대상이 응모작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불교문학의 신예작가 등용문인 '불교신문 신춘문예'는 단편소설 수상에 450만원, 동화와 평론이 350만원, 시·시조가 2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가에게는 불교신문의 필진으로 등용되는 기회도 주어져, 수상작은 2011년 신년특집호에 전면 게재된다. 김종찬 기자

범어서 화재 방재시스템 허접 노출

3면

긴급재난/ '소통 없는 정부여당 무엇이 문제인가'

10·11면

유시(諭示)

2천만 불자들은 오로지 정법(正法)으로 샅뽀를 끌고 정진하라

국민의 고통과 전통의 훼손을 가져온 금번 정치권의 행태로 빚어진 현 상황에 대해 우리 원로들은 한 마음으로 정책의 죽비를 높이 들어 종단의 평안함을 이룰지 못함을 자성(自省)합니다.

불신정법(不信正法) 고행무익(苦行無益)입니다. 정법을 믿지 아니하면 고행을 하더라도 이익이 없습니다. 곤란함과 고통이 곧 수행이니 우리 불자들은 지극한 불심을 결집해 악업의 고리를 단번에 끊어 없애야 합니다. 우리 불교계가 사회문제나 정치문제라 하여 무조건 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은 법. 정견(正見)을 가지고 샅뽀를 끌고 오로지 정법(正法)을 행해야 합니다.

내무실덕(內無實德) 외의무익(外儀無益) 합니다. 안으로 실다운 덕이 없으면 밖으로 위의를 세워도 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외부의 탓만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수행을 점검하고 우리 불교계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끊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세우는 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전 종도들은 불조의 해명을 높이 받들고 부처님의 법대로 살아 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를 양약(良藥)으로 삼고 고통을 수행의 의지처로 삼아 국민 모두가 복되고 참된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불자들의 지혜로 국민이 화합하고 승고한 전통이 높이 빛나는 길로 땀땀정진해야 할 것입니다.